

## 경기기조 논쟁... 각종 통계서 경기회복 징후 경제연구소들 성급한 기대 경계

**최** 근 각종 통계조사에서 경기회복 징후가 감지되고 있으나 삼성경제연구소 등 경제연구소들은 본격적인 회복 새로 보기엔 이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부도업체수가 근 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신설법인수는 대폭 증가했다. 1월 전국의 부도업체수(당좌거래 정지 기준)는 286개로 전월의 413개에 비해 127개가 줄었다. 1월중 부도업체수는 지난 2002년 2월의 285개 이후 35개월만의 최저치다. 또 지난해 1월의 317개에 비해서는 31개가 줄었다. 또 1월 8대 도시의 신설법인수는 2,957개로 전월보다 508개사가 증가, 2003년 4월의 3,030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도 지난해 12월보다 높게 나타났다.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90.3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가 66.5로 산정돼 지난해 12월 각각 85.1, 62.2에 비해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2004년도 창투자 벤처투자 실적 및 2005년도 투자전망'에서는 2005년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지난해보다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05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벤처투자는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벤처기업 지원확대 및 코스닥 활성화 등의 기대심리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4.3% 증가한 9,830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부품소재 등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비중도 점차 높여 나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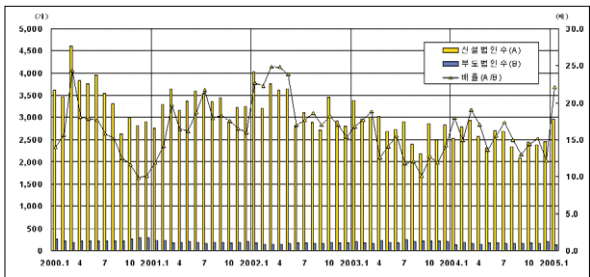
창투자 벤처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실적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2004년 대비 2003년 증감 수치	2005년 증가 비율
전체	6,118	5,639	9,830	4,191	74.3%
정보통신	3,214	3,141	3,837	696	22.2%
제조업(부품소재)	1,071	932	2,503	1,571	168.6%
바이오	230	148	509	361	243.9%
엔터테인먼트	960	1,221	1,847	626	51.3%
환경	49	36	200	164	455.6%
기타	594	161	934	773	480.1%

자료: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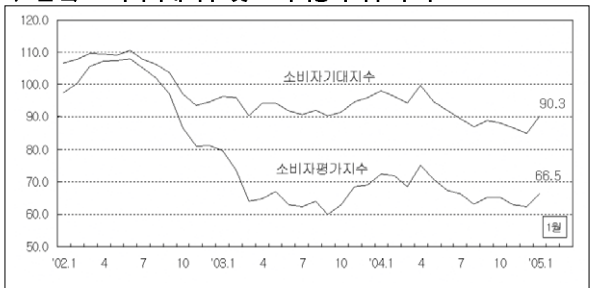
〈그림 1〉 2005년 1월 신설법인수 및 부도법인수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소비자기대지수 및 소비자평가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통계조사 결과와 달리 경제연구소들은 "아직 낙관은 이르다"며 성급한 기대를 경계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20일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을 동결한 데 이어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도 올해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화점 매출과 자동차 판매 증가, 신규 법인 증가, 부도업체 감소, 소비자 전망 개선, 설비투자 자금 대출 증가 등 경기회복 청신호들은 지난해 말 경기전망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200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민간 소비가 지난해 전망 때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환율 하락폭이 커 저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1월 발표 때와 같은 3.7%로 동결했다. LG경제연구원은 소득 양극화, 신용불량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제 전망을 지난해 9월 발표한 4.1%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연구소들은 경기 바닥을 지났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향후 민간소비 회복세에 따라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내비쳤다. 클 신승철 기자